
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2주차. 6월 항쟁
2강. 6월 항쟁과 인권



학습 내용

1. 인권의 차원에서 6월 항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?
2. 인권의 차원에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?



학습 목표

1. 6월 항쟁과 인권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
2. 그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2강

6월 항쟁과 인권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민주화와 인권은 어떤 관계인가?
- 나는 지금까지 6월 항쟁을 인권의 신장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했는가?



01 들어가기 전에

- ☑ 인권은 1948년 UN의 〈세계인권선언〉 발표 이후, 현대사회에서 최소한의 보장기준으로 인식
- ☑ 이후 시민적·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지침으로 간주
- ☑ 6월 항쟁은 시민적·정치적 권리 획득하기 위한 성격이 강함



01 들어가기 전에

- ☑️ 정치권력의 지배, 정치적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현실
- ☑️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권리보다 민주주의 토대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영역에 집중
- ☑️ 이런 상황으로 인권의 보편성은 추상적 수준에서 접근



1] 1987년 이전 인권

☑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이 국정목표

- ➡ 이로 인해 인권 탄압, 무시
- ➡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이 민주화운동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
- ➡ 정부수립 이후 <세계인권선언> 선포일인 12월 10일 인권의 날
- ➡ 이를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고 인식



1] 1987년 이전 인권

☑ 1960년대~6월 항쟁 이전의 인권

- ➡ 경제가 발전하면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
- ➡ 분단 상황에서 국가의 안정이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기본인식
- ➡ 1970년대 들어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개개인의 자유 보장이 인권의 출발이라는 자유권적 인권론 대두
- ➡ 구체적으로 사상·양심의 자유와 언론·출판의 자유 주장
- ➡ 1980년대 군부권위주의의 지속으로 자유에 대한 요구는 강력 제기



1] 1987년 이전 인권

☑ 1960년대~6월 항쟁 이전의 인권

- ➡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, 고문은 합법적 행위
- ➡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정치상황에서 인권은 완전한 공백 시대
- ➡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저항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
- ➡ 인권은 의례적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에 활용되는 수사(修辭)



2] 의미

◆ 사회적 측면

☑ 정부수립 이후 장기적 차원에서 시민들과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의 역동적 변화 추동

☑ 권위주의 정권

- ➔ 정치 영역의 억압과 탄압으로 자유의 침해 일상화
- ➔ 이에 순응적 국민으로 길들여져 왔음
- ➔ 국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억압적인 반공주의로 인해 배제되는 것이 정당화됨



2] 의미

◆ 사회적 측면

☑ 1970년대 독재 개발 체제의 지속

- ➔ 박정희의 사망으로 종말을 맞는 듯했지만, 전두환 군부정권에 의해 1980년대까지 지속
- ➔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깨어지면서 전두환의 신군부가 정치권력 장악
- ➔ 이들 역시 폭력적 수단으로 권력 탈취(12·12군사쿠데타, 5·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)
- ➔ 때문에 그 정당성을 박정희 정권을 계승하면서 경제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함
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수준 향상



2] 의미

◆ 사회적 측면

☑ 경제성장과 정치·사회적 불만

- ➔ 경제성장이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 요구를 촉진하게 된 원인으로 작동
- ➔ 국가는 경제적 문제, 즉 빵문제가 해결되면 정치·사회적 영역의 불만 해소 기대
- ➔ 이와 달리 억압적 정치에 대한 불만 확장



2] 의미

◆ 사회적 측면

☑ 억압적 정치

- ➔ 5공화국 권력 구조는 유신 체제와 비슷한 1인 지배체제의 연속
- ➔ 모든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
 - 입법부와 사법부 통제, 계엄 선포와 긴급조치 발동, 국회와 정당 해산권 보유
- ➔ 전두환 정권의 통치는 정치적 기본권 유보, 권위주의적 방식 지속



2] 의미

◆ 인권적 측면

☑ 인권의 특성

- ➡ 인권은 불가양(不可讓)과 불가분(不可分)의 특성
- ➡ 즉, 분할할 수 없고 남에게 빼앗길 수도 없는 보편 개념
- ➡ 또한 상호의존성의 원칙
- ➡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
- ➡ 그 본질적 특성으로 보편성, 도덕성, 근본성, 추상성, 우월성 등
- ➡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함
- ➡ 어떠한 시대나 공간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는 도덕적 권리
- ➡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
- ➡ 의미 내용의 경계가 불확정적인 추상적 권리
- ➡ 실정법보다 우선하는 우월적 특성



2] 의미

◆ 인권적 측면

☑ 6월 항쟁, 민주화운동의 연속성

- ➔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인 권위주의로 인해 인권 보장이 거의 불가능
- ➔ 기존의 민주화운동(4·19혁명, 5·18민주화운동)을 통해 정치적 자유의 열망을 분출할 수 있는 공간 마련
- ➔ 인권의 황무지였던 척박한 현실을 인권적 관점이라는 프레임 전환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게 하는 출발점
- ➔ 6월 항쟁은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자 하는 저항에 기초
- ➔ 이런 점에서 그 항쟁은 인권을 향한 노정(路程)



2] 의미

◆ 인권적 측면

☑ 인권적 측면에서의 6월 항쟁

- ➡ 민주주의와 정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가장 중요한 사건
- ➡ 민주적 사회의 토대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인권의 의미는 상실됨
- ➡ 한국사회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음
- ➡ 민주항쟁의 성과는,
 - :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화의 진전
 - : 사회운동의 공간 확장
 - : 인권 담론의 본격적 대두
- ➡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요건
- ➡ 민주화의 성취는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제 요건, 제도적인 안전망



학습 정리

- ? 인권적 측면에서의 6월 항쟁은 민주주의와 정치 수준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.
- ? 6월 항쟁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화의 진전을 이룩하였다.
- ? 6월 항쟁은 사회운동의 공간을 확장시켰고, 인권 담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.

